

토스 등 정보유출 잇따라... “언택트, 보안을 보완하라”

토스 가입자 모르게 938만원 결제 금융당국, 법적 문제로 농장대처 논란 언택트, 편리하지만 보안에 취약

최근 부정 결제 사건에 이어 개인 신용·체크카드 정보가 유출되거나 불법 유통되는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금융 안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과거 대규모 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만큼 소비자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언택트(Untact·비대면)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불안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언택트 서비스는 간편하지만 보안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3일 토스의 온라인 가맹점 세 곳에서 가입자 8명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총 938만원이 결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9일에는 해외 다크웹을 통해 국



/픽스타

내 신용카드 정보 90만건이 불법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크웹은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온라인 암시장이다. IP 추적을 피할 수 있어 신용카드 정보 거래자들을 추적하기 어렵다.

불법 유통된 정보의 54%는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카드가 재발급돼 사용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직 유효한 카드 정보도 41만 건에 이르는 것

로 파악됐다. 특히 결제에 필요한 모든 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코드)가 유출된 케이스는 1000건으로 이들 카드는 실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논란이 됐다.

최근에는 지난해 6월 하나은행 전산망에 악성 코드를 심으려다 정보통신망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모 씨(42)를 수사하던 서울지방경찰청 보안 수사대가 이 씨의 외장하드 두 개에서 신용카드 정보를 다량 발견했다.

외장하드에는 주민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고객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담겨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두 개 외장하드 용량 각각 1테라바이트(TB)와 500기가바이트(GB)에 달한다.

데이터 용량만 61GB로 적게는 수십만 명에서 많게는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까지도 보관 가능한 수준이다. 이 씨는 국내 카드가맹점 포스(POS)단말기, 멤버십가맹점,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을 해킹해 정보를 빼낸 것으로 알

려졌다.

문제는 금융당국의 농장대처다. 경찰은 금융당국과 신용카드사에 유출된 개인정보를 분석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금융당국이 법적 문제를 이유로 협조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금융당국은 경찰 수사를 돕기 위해 금감원 인력을 파견하고 부정방지사용시스템(FDS)가동 강화 등 긴급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금융소비자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과거 대규모 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만큼 제2의 유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카드업계는 지난 2014년 KB국민카드·농협은행·롯데카드 고객정보가 1억 500만 건 이상 유출되는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을 겪은 바 있다. 당시 카드 3사에 등록됐던 고객의 이름·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 번호·주소·카드번호 등 최대 19개 항목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2017년에는 일부 현금자동화기기(ATM)

M)가 해킹당하면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돼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계속되면서 언택트 서비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언택트 서비스는 간편하지만 보안에 있어서 취약한 만큼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당국은 토스 사건 이후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간편결제 등 비대면 금융 서비스의 보안 위험을 점검하기로 했다.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등의 결제 시스템도 다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번 사고로 드러난 디지털 금융 시스템 전반의 허점을 찾아보겠다는 취지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만큼 서비스 제공에 있어 안정성에 유의해야 한다”며 “소비자들의 불만이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업계 전반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주금공, 노후대비 주택연금 활성화 협약

고령층 안정 위한 주택연금제도 개선 소득주도특위, 정책 개발 등 지원 BNK금융, 주택연금 전담창구 운영

주택금융공사(HF)는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BNK금융그룹과 고령층 및 중장년층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고령층 및 중장년층이 자기 집에 거주하며 평생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으로, 안정적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주금공과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BNK금융그룹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하고,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활이 더욱 어려워진 취약 고령층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서는 주택연금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아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8일 부산은행 본사에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BNK금융그룹과 고령층 및 중장년층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공동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김지완 BNK금융그룹 회장,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 /주택금융공사

이에 따라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정책 개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주금공은 주택연금제도의 개선에 힘쓰고, BNK금융그룹(부산은행, 경남은행)과 공동으로 주택연금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한다.

또 BNK금융그룹은 주택연금 이용 고객의 접근성 향상과 편의성 증진을 위해 영업점에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전

문 상담직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이정환 주금공 사장은 “급속한 고령화에 맞춰 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만 55세로 낮추고, 우대형 주택연금의 연금지급액을 일반형 대비 최대 20% 증액해 든든한 노후 자금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중”이라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주택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박종복 SC제일은행장, 직원들과 온택트 토크

박종복 SC제일은행장이 지난 17일 비대면 온라인 채널을 통해 영업점 직원들과 소통하는 ‘온택트(On tact) 마음 나눔 토크’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달라진 영업 환경과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박 행장은 지난해 약 100회에 걸쳐 본점 및 전국 영업점을 방문해 식사를 겸한 대면미팅으로 전직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진의 영업 현장 방문이나 회의 등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선 직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하는 ‘온택트’ 방식을 택했다. 온택트는 언택트(Untact) 개념에 ‘온라인을 통한 외부와의 연결’이라는 의미를 가미한



박종복 SC제일은행장이 지난 17일 사내에 설치된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영업점 직원들과 다양한 주제로 대화하고 현장의 궁금증과 건의 사항도 듣는 ‘온택트 나눔 토크’를 진행하고 있다. /SC제일은행

소통 방식이다.

온택트 마음나눔 토크에서 박종복은 행장과 직원들은 영업 현장, 시사이슈, 금융 트렌드 등 다양한 주제로 자유로운 대화를 나눴다. /나유리 기자 yul115@

금융위 기술금융 실적평가서 ‘하나은행’ 1위

기술금융 실적에 양·질 우수성

하나은행이 금융위원회의 ‘2019년 하반기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 평가’에서 은행권 그룹 가운데 종합 1위를 차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하나은행은 6개 은행으로 구성된 대형은행 그룹 중 ▲공급 규모 ▲신용 지원 ▲창업 지원 ▲지원 역량 부문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TCB 기반 투자 부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하나은행은 기술금융 본연의 취지인 저신용 등급 기업과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 앞 신용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창업기업과 벤처기업 앞 투자 실적이 우수하여 기술금융 실적에 양적, 질적 우수성을 나타냈다. 또한 하나은행은 기술금융을 포함한 정부의 혁신금융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2019년 5월 하나금융그룹 회장을 의장으로 하는 혁신금융 협의회를 신설했다.

2020년부터는 동산담보대출 증대를 혁신금융의 제 1 목표로 설정하고 유관

부서와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혁신금융 증대를 위해 기술금융 18조원을 포함 향후 3년간 20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며 “혁신금융 협의회 산하 기업여신시스템 개선 협의회를 설립해 일괄담보제도 시행 및 기술, 신용평가 일원화를 적극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기술금융 평가는 기술력은 우수하나 담보력이 부족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에게 금융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금융위원회는 기술금융 확대를 위해 2014년 하반기부터 반기마다 기술금융 실적을 평가해 발표하고 있다. /나유리 기자

신한은행, 인생연금 프로젝트 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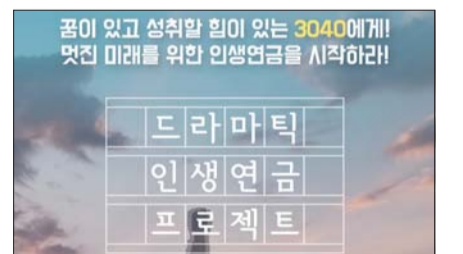
개인형 IRP 신규·자동이체고객 대상

신한은행은 개인형 퇴직연금(개인형 IRP) 신규 및 자동이체 등록 고객을 대상으로 ‘인생연금 프로젝트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7월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개인형 IRP 계좌를 ▲신규한 고객 ▲본인의 나이와 동일금액(만원단위) 이상으로 신규한 고객 ▲신규하고 10만원 이상, 12개월 이상 자동이체 등록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각 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추첨을 통해 갤럭시 Z플립(4명), 네스프레소 캡슐 커피머신(20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모바일 교환권(2000명) 등을 제공한다.

개인형 IRP는 은퇴를 준비하면서 매년 납입금액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 세테크 연금 상품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만 50세 이



상 고객일 경우 소득 기준 충족 시 3년간 최대 납입금액 9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많은 고객들이 ‘개인형 IRP’라는 금융상품과 가까워지고 세액공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은퇴 후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위해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한은행은 이벤트 진행과 함께 자칫 멀게 느껴질 수 있는 연금에 대해 친밀하게 느낄 수 있는 영상도 공개한다. /안삼미 기자 smahn1@